

먼저 겸허한 自己省察을

이 중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진실과 양심의 소리와, 정치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加減없이 서술한 무게있는 저서는 과연 몇이나 될까. 자신의 능력을 실제이상으로 과시하기 위해 사실과 虛構를 적당히 섞은 내용은 없을까. 어떤 정치인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용 선전책자의 냄새를 풍기는 출판물로 퍼낸 경우도 있고, 어떤 책자는 자신을 포함한 여러 정치동료들이 동참한 심포지움이나 鼎談내용을 모두 수록해 페이지 수만 불린 '속빈 강정'도 있다. 또 어떤 정치인의 저서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실을 왜곡한 흔적도 발견된다.

물론 개중에는 오도바이오그래피(자서전)로나 회고록 또는 투쟁기록으로서의 모든 조건과 요소를 구비한 수준작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심 없는 인간적인 고뇌를,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시인하고 반성한 양심의 소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政治家(statesman)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政客(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이땅에 자신의 일신적 영화보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정치가가 과연 몇명이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변은 궁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志操에는 철저히 못하면서 自作저서에만은 정치의 정도를 걸어왔고, 불의와 감연히 싸운 정의의 騎士처럼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는 예도 없지 않다.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 아무리 그럴싸한 修辭를 총동원해 자신을 미화했다고 해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사이비의 기록들은 정신적인 해독일 뿐이다.

金九선생의 자서전 '白凡逸志'를 읽고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金九선생이 결코 사람의 심금을 울릴 만큼 대단한 문장가여서는 아니다. 그의 사심없는 애국단심과 死線을 수없이 넘은 고행, 어머니의 눈물겨운 옥바라지, 조국광복을 향한 滅私報國의 충정 등이 조금의 가감도 기교도 없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인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실은 하늘도 움직이지만 僞善의 기록들은 아무리 웅변적인 미사여구를 총동원해도 감흥을 주지 못하는 활자의 나열일 뿐이다. 이 점을 간파할 줄 아는 분별력과 현명함이 있다면, 모름지기 자신의 저서를 남기려는 정치인들은 겁없이 집필하기에 앞서 일단 자신이 걸어온 정치歷程을 되돌아보고, 거짓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가부터 省察한 다음 그 가부를 결정하는 신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제언이다.

# 大權 경쟁... 책도 같이 뚫다

## 출판가에 정치열풍 — '1盧3金'에 관한 책들

### 9월 한달 동안 무려 11種 출간

최근 제12대 대통령 후보로 예상되는 이른바 '3金1盧'의 인간적 면모나 정치관 등을 다룬 책자들이 쏟아져 나와 바야흐로 출판가에 정치열풍이 불어닥친 느낌이다.

우선, 種數의 풍성함이 거의 폭발적이라 할 만하다. 9월 한달 동안에 다투어 선을 보인 것만 해도 11종이고, 이전에 발행된 것까지 합치면 현재 서점가에 깔려 있는 이 방면의 저술들은 무려 20종에 이른다. 그래서, 일부 대형서점에서는 따로이 특별 코너를 마련해 둘 정도.

게다가, 판매량에서도 폭발적이다. 발매 4일만에 초판 1만부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진 '三金과 盧泰愚'를 비롯해, 「東橋洞 24時」 같은 경우는 두달남짓 동안 25만부 가량이나 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도는 덜하지만 「金大中 그는 누구인가」도 한달이 안돼 재판을 찍어내는 판매량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출판계에 이같은 정치열풍을 몰고 온 '3金1盧' 가운데서도 김대중씨 관계 책자가 주수로나 판매량으로나 단연 으뜸으로 전체의 절반인 10종이 그에 관계되는 저술들이다.

그중 김대중씨 개인의 인물평전적 성격을 갖는 것이 「金大中 그는 누구인가」, 「金大中, 그의 투쟁 그의 민주화 의지」, 「東橋洞의 낮과 밤」, 「金大中, 光州에서 서울까지」, 「東橋洞 24時」 등 모두 5종인데,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앞의 세 책이 비교적 측근의 입장에서 기술된 김대중 평전이라면, 「金大中, 光州에서 서울까지」는 그동안 각종 간행물에 실린 김대중씨 관련 인터뷰를 중심으로 엮어져 김대중씨에의 지지 여부가 적어도 文面上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반면, 「東橋洞 24時」는 김대중씨의 부정적 면모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8월초 이 책을 걸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측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관계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알리려는 욕망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정치의 계절을 맞아 시의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것.  
이제 독자에게 남겨진 것은 현명한 취사선택의 문제인데...

또, 특징적으로 4종의 책이 1973년의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증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일본 마이니찌 신문 연재물을 보완·번역한 「金大中 拉致事件의 全貌」, 같은 사건을 도큐멘터리로 재구성한 「金大中을 抹殺하라」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들은 대개 김대중씨가 받은 고난을 강조함으로써 연계될 어떤 반대급부를 겨냥하는 한편,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부도덕의 진상을 폭로한다는 양면성을 아울러 가진다.

김영삼씨를 다룬 책은 5종에 이르는데, 판매량은 김대중씨 관련 저서에 비해 덜한 편이다. 이 가운데 인물평전적 성격을 갖는 것이 「金泳三, 祖國·民族 그리고 民主主義」, 「上道洞 25時」, 「上道洞 24時」 등 3종이다.

'야당총재 인물시리즈 3'으로 2년 전에 발행

### 관계著書 목록

#### 김대중씨 관계 저서

김대중사건(김상일·기린원·85.8)/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모(마이니찌신문사·녹두·85.9)/동교동 24시(함윤식·우성·87.6)/김대중 그는 누구인가(김형문·금문당·87.7)/김대중 그의 투쟁 그의 민주화의지(김중순·시인통신사·87.7)/김대중을 말살하라(이영신·한국출판·87.7)/김대중사건의 진상(김대중씨납치사건진상조사위원회·삼민사·87.9)/김대중 광주에서 서울까지(류가형·규장각·87.9)/동교동의 낮과 밤(추치호·평범서당·87.9)/동교동 25시(한재웅·한국출판문화공사·87.9)/김대중 어록(김중식·월출·87.9)

#### 김영삼씨 관계 저서

김영삼 조국 민족 그리고 민주주의(서병규·문예춘추사·85.7)/민주화의 햇불 김영삼(편집부·원음사·87.6)/상도동 24시(한재웅·한국출판문화공사·87.9)/상도동 25시(박종민·청목·87.9)/새벽을 열며(김덕룡·동광출판사·87.9)

#### 김종필씨 관계 저서

내가 본 김종필(김영웅·교음사·87.9)

#### 기타 2인 이상에 관한 저서

JP와 HR(이영석·원음출판사·83.3)/김대중과 김영삼(손세일·일월서각·85.8)/김영삼·김대중 협력 속의 대립(류가형·규장각·87.9)/3김과 노태우(오호진·세종출판공사·87.9)

된 「金泳三, 祖國·民族 그리고 民主主義」는 야당사의 문맥 속에 김영삼씨가 걸어온 정치행적 및 역할을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편, 「東橋洞 24時」의 선풍을 다분히 의식한 듯이 보이는 「上道洞 24時」, 「上道洞 25時」의 경우는 정가 3천원짜리가 거리의 좌판에서 2천원에 팔리고 있다는 점, 다른 간행물의 사진을 복사·계재하여 화보 상태가 극히 불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책은 아닐 듯.

김영삼씨에 관한 또다른 책인 「民主化의 햇불 金泳三」은 각종 인터뷰, 대담, 연설문 및 그에 관한 전기적 사실들을 모아서 수록했고, 「새벽을 열며」는 김영삼씨의 단식투쟁에 얽힌 이야기를 측근인 김덕룡씨가 엮었다.

김종필씨에 관한 책으로는 「내가 본 金鍾泌」, 「JP와 HR」 2종이 있다. 전자는 1985년에 간행된 「운정 김종필의 어제와 오늘」을 改題하여 지난 달 재발간한 것으로, 현직 목사인 저자가 5·17 이후 김종필씨와 왕래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엮은 책이다.

후자는 정치秘話類의 저술로서, 김종필씨와 더불어 제3공화국의 실력자였던 이후락씨의 대비를 통해 김종필씨의 인간적 면모, 정치스타일 등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엮고 있다.

노태우씨의 경우는, 발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노태우씨가 단독으로 언급된 책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세금씨와 함께 다루어진 것으로, 언론인 오호진씨가 모 월간지에 연속 게재했던 4편의 인터뷰를 한데 묶은 「三金과 盧泰愚」가 있다.

「金大中과 金泳三」, 「金泳三·金大中, 協力속의 對立」의 경우도 대상이 兩金으로 좁혀졌지만 「三金과 盧泰愚」처럼 어느 한쪽에 편벽되게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자료모음이라 할 수 있다.

### 알리려는 욕망과 알고자 하는 욕망

정치인 관계 저서들이 이같이 활발히 출간되어 팔리고 있는데 대해 출판가에선 대개 두 가지 측면의 원인이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장차 있게 될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당해 후보 예상자의 이미지 부각이라는 공급의 측면과, 일반인의 정치에 관한 정보획득이 그동안 상당 부분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요의 측면이 바로 그것. 말하자면, 알리려는 욕망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정치의 계절을 맞아 시의적절하게 결합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독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일 듯. 정치인 스스로의 직접 저술까지 포함한다면 근 40여종에 이르는 이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누구에게 大權을 쥐어 줄 것인가 하는 기준을 찾아내는 일은 온전히 독자의 몫일 것이기 때문이다.

— 강철주 기자